

연중 제15주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행사)

제 1 독서 : 2역대 24, 18-22

제 2 독서 : 로마 5, 1-5

특 음 : 마태 10, 17-22

숨 정 이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5, 4b)

강론

성 안드레아 김대건

김희남 신부 / 팔마 천주교회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 한국 최초의 방인 사제 이시며 열렬한 신앙의 삶을 살다 가신 분, 이제 성인품에 오르시어 한국 사람만이 아닌 전세계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살펴보면 아주 짧고 단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821년 출생, 1836년 중국 마카오 유학, 1845년 8월 사제서품, 1846년 5월 관현에 체포, 1846년 9월 참수치명. 이렇게 보면 25세에 사제서품, 그리고 26세에 치명하신 것이다. 사제로서의 생활을 1년 정도 하신 것이다. 그나마 잡혀신 기간을 빼면 사목생활을 하신 것은 몇 개월뿐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에서는 이분을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추앙하고 있다. 단순히 한국 최초의 방인 성직자요 순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짧은 세월이었지만 온 힘을 다 쏟아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불살랐기 때문이리라. 순수하고 아름답게, 말로만이 아닌 온몸으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리라. 죽음 직전에서도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라고 용감하게 외친 그 정열에 있으리라. 참으로 김대건 신부님은 남을 위해 생의 모든 것을 불태우셨다. 오늘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신부님 생애를 잘 표현하여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 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로마 5, 3, 5)

이제 우리에게 외적인 박해는 없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교회에 입교자가 줄고 냉담자는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사회도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하느님과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흠없이 일생을 바치신 김대건 신부님과 같은 신앙인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소리

월드컵이 뭐길래

장마가 오락가락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모두가 짜증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럴 때 월드컵 화면이라도 기분 좋게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려만 정신까지 빼앗긴 우리 팀 경기는 세 차례에 불과했다.

사고와 폭력 그리고 공포의 월드컵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도 열 다섯번째 계속되더니 자살골을 기록한 콜롬비아 선수가 총살을 당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그래도 월드컵의 열기는 대단하다.

축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대세에 밀려 월드컵 화제에 끼어 들었고 열대야도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긴다.

온통 월드컵에 미쳐있는 동안 철도와 지하철이 마비되고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정해졌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들도 월드컵만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삶의 터전이요, 생명의 분신이며 가장 소중한 기차와 전동차까지 멈추게 하고 따가운 비난의 소리까지 감내하면서 왜 그들은 파업의 길에 들어섰는지 뒤안길은 감춰지고 말았다.

분단의 아픔에 이제는 면역이라도 된 양 남북정상회담의 얘기도 우리 무대의 주역으로 등장치 못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론의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 희한한 관심 집중거리를 만들어 제공해왔다.

어쩌면 그것에 길들여져 가까운 이웃의 고통조차 외면하는지 모른다. **문**

숨정이 산책



숨이 차서...

성서교실 41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다(창세 30, 25~43)

이제부터 초점이 야곱의 집안문제에서 외부문제로 옮겨 간다. 그것은 곧 라헬과 레아의 갈등에서 야곱과 라반의 갈등으로 이야기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라반은 점괘를 통해서 그가 받은 물질적 복이 야곱을 보살피 주시는 하느님 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라반의 집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냈던 명백한 야훼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점괘나 부족신들을 믿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부터 달라진대로 임금을 주겠으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곱은 하느님의 보살피심을 인정하는 장인의 말에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결과 장인의 재산이 대단히 불어났음을 덧붙여 강조한 다음 이후부터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요구한다. 사실 이제껏 장인과의 계약에 매여 장인의 일만을 해주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장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향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야곱이 제시한 임금협상안은 매우 특이하다. 야곱은 장인으로부터 어떠한 임금도 직접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대신 자기가 돌보는 장인의 양떼 가운데 검은 양과 흰줄무늬 염소들만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청한다. 이런 색깔의 양과 염소들은 들연변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양은 흰색을 염소는 검정색을 갖는다. 비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라반은 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술 더 떠 라반은 야곱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검은 양과 흰줄무늬 염소들을 골라내기 전에 미리 그것들을 모조리 빼들려 자기 아들들이 돌보는 양과 염소떼에 섞어 놓는다.

장인의 술책에 야곱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용하여 교활한 장인에게서 재산을 얻어낸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경험 많은 양치기들이 선배들에게 배운 방법으로써 양들의 버릇에 대한 관찰과 고대의 주술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당대의 목축비법을 반영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야곱은 튼튼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검은 양과 흰줄무늬 염소 새끼들을 많이 갖게 되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라반의 교활한 꾀가 야곱의 지혜를 따라 잡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극히 세속적인 이 이야기가 전해 주는 교훈은 사악한 라반이 야곱을 골탕먹이려 했다가 오히려 착한 야곱에게 당하게 되었다는 이솝 이야기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의 부에 대한 라반의



방목하는 양과 염소

술직한 고백과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에게 내리는 주님의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야곱의 확인에 있다 할 것이다. 라반은 자신의 부가 야곱을 보살피 주시는 하느님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가져다 준 야곱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고 악착같이 착취하려고 했다. 라반의 욕심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올바른 인식을 온전히 가로막고 인간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짓밟도록 만든다.

이에 비해 야곱의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는 라반의 태도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비록 어린시절 형 에사오를 속이고 그의 복수를 피해 도망쳐 나온 야곱이지만 라반의 집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매우 성숙하고 점잖은 것이었다. 삼촌과의 계약에 충실했고 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보살폈으며 “훗날 제가 샀으로 받은 양떼를 와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 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장담하는 그의 말에서처럼 항상 정직하게 행동했다.

야곱의 이런 착한 삶이 라반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평생 떠돌이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할 형편이었는데 불의에 희생은 당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느님께서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신 것이다. 더구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정식으로 이어 받은 상속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마지막 말씀 뒤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다.

영창피아노 중앙대리점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
- 24개월 장기 할부 판매
- 교수님 조율시 20% 할인

우 영 순(프란치스코)
신 중앙상가 1층
☎ (0653)858-9109
호출기 : 012-676-5772

다사랑 미용실
퍼머 전문점

최 구 팔(스테파노)
공 계 자(스테파니아)

삼천동 효문국교 정문 앞
쌍용아파트 앞
☎ 225-322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경 (유리인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리틀해즈

- 원목가구 주문 제작
-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 수(에밀리오)
김 경 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앞
☎ (0652)223-6422

교리상식 ㉓

성 안드레아 김대건 ①

선각자 김대건 신부

한국 최초의 신부요 순교 성인인 김대건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나라가 그 문을 열기 전 너무 일찍 해성처럼 나타났던 민족의 선각자이다. 짧은 생애에 비해 많은 일을 하였지만 너무도 단명했던 목자였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사제 서품(1845년 8월17일)을 받은 지 1년 1개월, 부제(1844년 12월) 기간까지 합쳐도 1년 9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성직생활이었다.

김 안드레아(대건) 신부는 15세가 되던 해(1836년)에 성세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프란치스코 및 토마(良業)와 함께 모방 나 신부에게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12월에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에 도착하였다. 다음해 마카오로 건너가 거기서 성덕을 닦고 1845년 8월17일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았다. 6개국 말을 할 줄 아는 한국 최초의 서양어 체득자이기도 했다. 파란 많은 국내의 정세 때문에 중국과 필리핀의 마닐라, 몽고, 만주 등을 왕래하여 당시 그는 최장 거리 여행기록을 내기도 했다.

김 신부는 또 신학 이외에도 서양 문물에 접촉하여 많은 교양과 학식을 쌓았다. 당시 그를 취조하던 몽매한 한국 관헌들이 그의 박학 다식함에 감탄하였고 뜻있는 사람들은 그를 살리고 싶어하였다.

신품성사와 미사 봉헌으로 은총의 힘을 입은 김대건 신부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선을 넘나들던 험과 용기를 배가하여 1845년 10월 강경 황산포에 상륙, 서울과 인근 용인 지방에서 교우들을 방문하고 성사를 집전하였다. 그의 힘있는 말씀과 강론은 즉시 신자들의 열성을 불러일으켰으며 신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교구 소식

- 1. 교구장 사목방문 : 7월11일(월) 성요셉 노동자의 집, 7월12일(화)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베소라, 7월14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친호 피정의 집
 - 2. 故 권영균 신부 1주기 추모미사 : 7월16일(토)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 3. 친호 피정 안내 : 7월16일~17일 주제-성가정 피정, 강사-강수근 신부 문의 73-6600
 - 4. 전국 교육국 직원 모임 : 7월12일~13일 오후2시 나바위 피정의 집
 - 5. 예비신학생 하계연수 : 7월23일~25일 나바위 피정의 집(7월 모임은 쉽니다) ※ 모든 예비신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6. 가톨릭 사진가회 연례피정 : 7월16일~17일 오후2시30분 장소-한대골 공소 출발-가톨릭센터
 - 7. 가톨릭 약우회 가족피정 : 7월16일~17일 오후2시 나바위 피정의 집, 지도-김동준 신부
 - 8. 수녀 연합회 : 7월12일(화)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 ※ 축! 영명 : 11일(성베네딕도)박성운, 김반석, 김병운, 김용태, 현유복, 권이복, 유영도, 양경배, 정천봉, 이명재, 이영우 신부님
13일(성헨리코) 김영수 신부님
15일(성보나벤투라) 이수현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1)

가정에서 쓰다 남은 식용유를 그대로 버릴 게 아니라 잘 모아 두었다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쓰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요심이 (1089) 김병오



은인을 찾습니다

성당신축에 따른 성물 및 비품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정성도 큰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전주교구 고산성당 100주년 기념사업 ☎ (0652)71-4171(FAX겸용)

확장개원 이리 흥익 미술학원

유아교육과 졸업자로서 1~2년이상 유경험자,오래도록 근무하실 분 환영

면접 : 7월15일부터 이가우(울리아나) ☎ (0653)855-8692,51-0548

원생모집 한겨레 웅변 속셈학원

유치부·국민학생 웅변, 속셈, 글짓기 지도

이혜숙(소피아) 금암2동 파출소 앞 ☎ (0652) 77-7114

주방요리기구 전문점 비전사

카이젤 인덕션렌지, 카터기, 테크노세라믹, 녹죽기, 마마께주부 최학만(바오로) 송계순(소화 데레사) ☎ (0652)254-7928~9 FAX (0652)254-2931

엄마사랑 서부점

이유식·당뇨식·건강식 42종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박종환(유스띠노) 이미연(마리아) 효자동 성당 앞 ☎ 225-4350

전주보육사

여름성경·산간학교 T셔츠 가방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이승호(다마스) 금암분수대 앞 ☎ (0652) 72-8818 (0654) 43-1423

제주·조천 보리빵

당뇨, 변비, 고혈압, 비만, 성인병예방, 어린이성장발육, 무가당 무방부제(특약점모집) ☎ 전주 222-9787 군산 62-5595 이리 857-2729 남원 625-765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연중 제 15주일
- 축! 첫영성체: 33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미사시간 안내
월요일-새벽 5시30분, 화요일-전 10시30분(어머니미사) 수요일-금요일-저녁 7시30분, 토요일-후 4시(이린미사) 저녁 7시30분(특전미사), 일요일-새벽 5시30분, 오전 10시(장엄미사), 오후 5시(중·고생미사)
- 1. 천사의 모후 꾸리아 간부 결집
단장-장성복(바오로)→박길량(라이문도)
서기-박길량(라이문도)→이동근(빈첸시오)
- 2. 초·중·고 신앙학교 준비를 위한 친조금 접수: 사무실
2차 현금: 24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3.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3일(토)~26일(화)
물놀이: 27일(수)~28일(목) 참가비 5,000원
- 4. 중·고 여름 신앙학교: 24일(일)~27일(수)-교리
산간학교: 28일(목)~30일(토) 참가비 10,000원
- 5.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12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속형제회(16일 후 2시)
④대건회(17일 장엄미사 후)
- 6. 금주 청소: 인후8,9반, 차주 청소: 인후10,11반.
□ 지난주 봉헌금: 943,640원 □ 2차현금: 407,360원
□ 교무금: 1,681,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영

- 1.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 3.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4. 안나회: 14일(목) 오전 10시
- 5. 성우회 단합대회: 17일 공식미사 후
- 6.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7월21~24일(캠프 23~24일)
- 7. 초등부학생 여름캠프: 일시-23~24일(1박2일)
장소-진안 용평 국민학교, 대상-초등부 전학년
회비-5,000원, 신청-초등부 교리교사회
- 8. 중·고학생 여름캠프: 일시-7월22~25일(3박4일)
장소-진안 용평 국민학교, 회비-7,000원
신청-중·고 교리교사회, 마감-7월10일까지
- 9. 초등부 중·고등부 여름캠프가 시작됩니다. 모든 신자분들의
많은 성원바랍니다(찬조금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10. 성당 청소: 16일(토) 중거리의 모후Pr, 천주의 성모Pr
- 11.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김성원 가족
- 12.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신태섭 부부
봉헌-전호승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94,700원 □ 교무금: 1,294,900원
□ 감사헌금: 50,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1. 모임: ①안나회-공식미사 후
②장년회-16일(토) 저녁
-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3일(토)~27일(수)까지
회비-5천원, 신청-초등부 교리교사회
- 3. 중·고생 신앙학교: 25일(월)~27일(수)까지, 회비-8천원
장소-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신청-중·고 교리교사회
- 4. 초·중·고생 여름 신앙학교를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단체, 개인별로 협조해 주실 분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 5. 성모회 성지순례: 20일(수) 연풍 성지
- 6. 첫영성체 준비 교리: 7월28일(목)~8월13일(토)까지
- 7. 금주 전례: 해설-이훈봉, 독서①정광섭 ②오귀남
봉헌-최경림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박기철 ②이순자
봉헌-김종화씨 부부
- 8. 금주 청소: 모든 성인의 모후Pr
- 9. 차주 청소: 성실하신 동정녀Pr
-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키·로: 회람에 그리스도(XPISTOS)의 처음 두 글자를 따서 꾸민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쓰인다.
□ 지난주 봉헌금: 437,100원

- 연중 제15주일!
- 1. 프란치스코3회: 7월10일(오늘) 오후 2시
- 2. 성심회: 7월12일(화) 오전 10시30분(총회)
- 3. 울뜨레아: 7월14일(목) 오후 8시
- 4. 성모회: 7월1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5. 중·고 여름캠프: ①매-7월24일(일)~7월26일(화)
②꽃-고당 수련원
③대상-중·고등부 학생
④참가비-8천원
⑤신청-중·고학생회, 교리교사회
(7월10일까지)
- 6. 성전 보수현금 수입하신 분(지난주): 오만리(요한) 30만원, 장
정자(테레사) 10만원, 이옥자(모니카) 5만원, 이영자(도미니)
2만원, 백인진(안젤라) 1만원, 7월3일 현재 293세대 수입
□ 지난주 봉헌금: 1,014,050원 □ 교무금: 957,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Cu(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 2. 성심유치원 캠프: 11일~12일, 장소: 무주 안성 자연학습장
- 3. 사리회: 12일(화) 오전 11시
- 4. 돈보스코회: 13일(수) 오후 7시30분
- 5. 구역반장 회의: 14일(목) 오전 11시
- 6.故 권영근 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 16일(토) 오전 10시30분,
중앙 성당
- 7. 청년연합회 하계수련회: 16일~17일 후 3시 출발,
장소-순창군 서호
- 8. 차주: ①바나의 성모Cu(후 2시)
- 9. 감사합니다: 성당 엠프 현금-100만원(익명)
- 10.예비자 교리반 안내
일요일: 오전 9시(일반) 화요일: 오후 8시(젊은이)
목요일: 오후 8시(직장인) 금요일: 오후 2시(주부, 노인)
토요일: 오후 4시(중·고학생)
□ 지난주 봉헌금: 1,769,55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다음주일은 청소년 신앙학교를 위한 2차 현금
- 1. 사목회 상임 위원회: 14일 저녁 8시 신앙학교 운영문제
- 2. 성서특강: 15일 전 10시 전동 성당 교육관, 강사-정태연 신부
- 3. 교구 신학생 수련회: 10일~11일 관촌 사선대
- 4. 천사회 아의미사: 11일 전 10시 읍수동(오묘)
- 5. 성조들의 모후Pr 100차 단합대회: 12일 전 11시 축하합니다.
- 6. 미사 변경 안내: 15일(금) 신부님 강습회 관계로 새벽 5시30분
으로 변경됩니다.
- 7. 초등부 신앙학교: 25일~29일 전 8시20분
중·고등부 신앙학교: 27일~28일 후 2시~5시
오늘까지 청소년 신앙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비: 5천원.
- 8. 회의: 성체회-공식미사 후
청년 성가대-저녁미사 후
빈첸시오회-13일 어머니미사 후
자모회-14일 전 10시
임마누엘-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 오늘은 성소 후원의 날: 회의-공식미사 후
영적 물체에불에 감사: 4,793,000원. 교우들의 정성에 감사드
리며 성전 건축현금으로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33,250원 □ 교무금: 2,369,9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전동 교육관, 마태오 복음 강의